

News

시중銀 과점 허문다...증권·보험·핀테크에도 은행업무 일부 허용 검토

한국경제

금융당국, 보험·증권·카드사 등에 은행의 일부 업무를 허용해 상호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오는 5월 도입될 핀테크 대한대출 플랫폼도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할 주요 방안 중 하나로 꼽힘

인뱅 3사, 연체 대출 3배 급증...高금리에 신용자 상환력 ↓

더팩트

지난해 말 기준 인터넷 은행 3사의 1개월 이상 연체 대출 잔액이 2915억9100만 원으로 집계
지난해 1분기 말(1062억 원)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한 수준

토스뱅크, 3000억 추가 투자 유치...기업가치 2조 희망

서울경제

국내 인터넷은행 업계 3위 토스뱅크가 약 3000억원의 외부 투자금을 유치
내년부터 바젤III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선제적인 자본 확충으로 재무 건전성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

금산분리 완화 대비...KB, 전기차 충전사업 진출

서울경제

차 충전 관련 사내벤처 조성중, '깨비충전·KB충전' 상표 출원
전업 규제 풀리면 곧바로 진출, 반려동물·세무서비스 플랫폼도

배당여력 없는 보험사 신종자본증권, 이제 퇴출

대한금융신문

올해부터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에는 '배당요건'이 명시되어야 함
배당 여력이 없는 보험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투자자는 이자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의미

DB손보, 베트남 10위 보험사 'VNI' 품는다... 8년만의 재투자

머니S

DB손해보험은 지난 22일 VNI의 지분 75%를 인수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
VNI는 오는 27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 승인할 예정

신용용자 이자율 인하 잇따라

매일경제

KB증권이 최고 0.3%p 내리기로 한 데 이어 미래에셋증권도 같은 수준의 인하를 최근 결정
금융당국의 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으로 풀이

3700억 규모 부산 다대포 개발도 '올스톱' 위기

서울경제

금융시장 한파에 빠격대는 '부산 다대포 드림', 최대 연 18%에 브리지론 400억 원 모집
오는 4월 20일까지 재연장해주기, 추가 자금 확보가 불발되면 최악의 경우 공매로 넘어감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